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4.26.(제3751)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 손경민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교회창립70주년감사예배

1부 11:00
2부 홈커밍데이
3부 종탑 이전식

부활절 제4주

집례: 권오진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 64장(1,3절) ...다 같 이 ※영 광 송..... 5장 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례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
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126:5-6)

※경 배 찬 송..... 8장 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의
은혜를 다시 새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거룩한
개혁의 사명을 따라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
립니다. 아멘.

※교 독 문.....교리적 선언.....다 같 이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
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

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으로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 도.....서태희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후원금 전달식...엔젤만증후군협회...담임목사
월 드 비 전
자립준비청년사업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김성욱 권사

구 약 | 이 사 야 46:9-10

신 약 | 빌 립 보 서 1:3-6

찬 양...여호와께는 위대하다...찬 양 대

중 언.....권오진 목사

『70년의 은혜를 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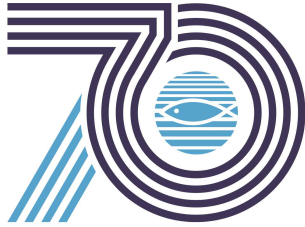
새로운 부흥으로』

교회가 제창.....다 같 이

※복 의 선 언.....백구영 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중앙교회 창립 70주년
70년의 은혜를 품고
새로운 부흥으로

다음 주:
첫단추기도회(제 7 남선교회 주관)

젊은이예배

창립기념예배 및 홈커밍데이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44	영 아 부	7
주 일 2 부 예 배	272	유 치 부	11
주일실시간방송예배	38	유 초 등 부	20
첫 단 추 기 도 회	.	중 · 고 등 부	22
목 장 모 임	195	청 년 부	21
수 요 성 서 연 구	55	예 수 소 망 반	30
수요실시간방송예배	14	생 명 의 삶	26
금 요 성 령 집 회	47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22	합 계	137
합 계	549		

헌 금			
주 일 헌 금	1,733,000	감 사 헌 금	1,490,000
교회학교헌금	183,200	생 일 헌 금	100,000
월 정 헌 금	1,200,000	선 교 헌 금	40,000
십 일 조	6,740,000	특 별 헌 금	100,300,000
합 계 111,786,2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열왕기하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골로새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4월 29일(수) 10:30, 송호준 전도사

어? 성경이 읽히지 않네!
신약 1과 (계속)

신약을 이야기로 확~ 꿰뚫기

- 금 주 기 도 : 제3여선교회
- 다음주기도 : 최명희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4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동수 최명애	김영화 이호순 정미애 최명희 최은주 황문연
안내위원	구용연	강용국 노복순
강단헌화	(신충우 김영미) (차상옥 석진숙)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지난 주일 증언

사랑하기에 행복합니다

구약 신명기 33:29

신약 요한일서 4:7-12

설교 : 권오진 목사

지난주 한 성도님과 심방예배를 드리며 나누었던 대화가 한주 내내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야기 하다가 문득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아닐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 설교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기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20대 중반 지금의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기다리던 답을 얻기 위해 3일 작정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금식기도였습니다. 3일동안 너무 배고팠지만 마침내 기도응답을 받아 기다리던 답을 들었을 때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벅찬 행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월드비전에서 사역하기 위해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연말 회장님께서 가족들 만나고 오라고 특별휴가를 주셨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꼬박 이틀이 걸려 날아간 보스턴에서 꽃을 준비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민목회하면서 한 VIP 성도의 앨라바마 정착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짐 트럭을 직접 몰고 달려간 낯선 땅에서 그분의 살집을 알아봐주고

직장 취업일을 도와주고 신앙생활할 한인교회를 소개해주고 홀로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힘든 여정이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형제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운 가족을 향한 가장의 마음, 한 초신자 형제를 위한 목회자의 마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기에 행복한 나라가 분명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고, 뛰어난 기술로 질병을 정복해가며, 화려한 미디어 속에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울증’과 ‘고립감’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이 분이 연구해보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도가 그만큼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성적이 이만큼 나와야, 연봉이 저만큼 올라야, 자녀가 이 대학에 가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에 행복한 삶’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오늘 봉독하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행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에쉐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쁘다는 뜻을 넘어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자의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른 길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

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의 그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선언을 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여전히 광야의 거친 먼지가 묻어 있었고, 잠자리는 텐트였으며, 먹을 것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뿐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노숙자’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안고 계신 백성, 그분의 사랑의 눈동자가 한시도 떠나지 않는 백성,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점수판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에,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축복 속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선포해볼까요. “OOO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OOO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행복 - 사랑의 춤 (페리코레스시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세 분의 관계는 신학적 용어로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 어원적으로 ‘주위를 돌다 (peri)’와 ‘춤추다(choresis)’의 합성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세 위격이 마치 동그란 춤을 추듯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순환하며 소통하는 역동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무한히 기뻐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의 띠가 되어 두 분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랑을 나누셨고, 그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페리코레스시를 사랑의 춤사위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복은 ‘획득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만 바로소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랑하기에 이미 충만하게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 성삼위의 사랑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빛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고통과 저주의 자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지난주 제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성도님 말씀처럼,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우셨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셨던 분입니다. 사랑은 고통마저도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하셨고, 용서하셨기에 그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행복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춤사위로의 초청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은 사랑받음으로 시작되고, 사랑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그 유명한 ‘아가페’입니다. 본문은 이 아가페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에크 투 테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왜 불행해질까요?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억지로 쥐어짜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를 뒤에서 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행복의 순서를 가르쳐줍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행복하다는 고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빛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우れの 아들'이라 불릴 만큼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 그는 평생을 '사랑'만 외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노년의 요한은 거동이 불편해 제자들의 등에 업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도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의 노년은 초라하지 않았습니 다. 비록 유배지에 있었고 육체는 쇠약했지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광채로 빛났습니 다. 그는 사랑하기에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사랑받음으로 시작하고, 사랑함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은 마치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출사위에 초청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조건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인간의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춤을 함께 추자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창립7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가 70가정 반찬봉사였는데, 바로 어제 그 봉사를 했습니다. 여선교회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우리 남선교회와 청년부에서 열심히 배달을 하면서 참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 다. 주민센터에서 2분의 직원이 나오셨는데 성도님들 섬기시는 모습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런 섬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춤사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주일예배,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안내/주방/카페/주차/재정 등 주일봉사, 금요성령집회 때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 매달 두번씩 모이는 목장모임 속의 나눔과 친교, 각 목장별로 진행하고 있는 이웃사랑나눔 프로젝트, 그리고 오늘과 다음주에 진행하시는 엔젤만 환우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굿즈 판매 등,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성삼위 하

나님의 사랑의 춤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 다. 저는 그래서 아현중앙교회를 섬기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세가지 실천사항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십자가의 사랑을 수혈받으십시오.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자원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십자가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기도의 관을 연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힘이 아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삶의 행복엔진은 지치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춤을 함께 추십시오.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거나 일터에서 땀흘려 일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것을 고된 '노동'이나 '의무'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는 행복한 출사위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 찰나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요한일서 4장 12절) 이 되는 줄로 믿습니 다

셋째, 주위 사람들을 이 거룩한 춤으로 초청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 분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로 초대하십시오. 거창한 선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용서의 손길이 멋진 초청장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기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이 거룩한 춤에 초청할 때, 우리의 행복은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자입니다. '사랑하기에 행복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이선균 차정연) (손민승 방세미) (장재호 전소은) (송호준 황영진) 박지연 (구본수 송명희) (안홍순 양정화) (이평식 김영숙)
(이한표 김순영) (조순형 백문희) (김경행 전차월) (김동수 전순남) (김문기 정건화) (김상길 정윤희) (김정문 유은중) 오금복
윤정환 (이명렬 최성애) 이운선 이지혜B 이한나 (장만섭 고순문) 전명숙 (정현호 송미숙) 추화순

월 정 헌 금 (심대섭 류은숙) 강정희 김도현 (김종근 이연석) 김진숙 (박상근 차용분) (박세광 구향모) 윤영화 (이능하 김기열) 이명애
(이상환 최선규) 홍순옥 홍연재

감 사 헌 금

(박범택 윤옥희)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서태희 : 아현중앙 이 구원의 방주를 70년 동안 주님께에서 직접 노저어 주시고 순풍으로 운행시켜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최희성 : 에벤에셀의 하나님! 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정희 :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힘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자녀손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성옥 :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항상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김종근 이연석) : 하나님 퇴원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몸과 믿음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김진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영임 :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문정은 :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세광 구향모) : 선이가 건강하게 두 번째 생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게 하옵소서.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송주영 : 모든 식구들 건강과 생활에 안정됨을 감사합니다.

심선영 : 현모와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재현 유인영) : 병역의무와 이사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용훈 : 작은 이익이 남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좋은 인연이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서울 :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희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이용환 :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임 : 심방 감사드립니다.

이진숙 : 우리 삶에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영성의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이태영 이옥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전동순 :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파도를 타고 일하시는 주님의 기이한 섭리를 건게 하옵소서. 아멘.

정옥자 : 정옥자, 서승자, 서승남. 주님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주혜 : 범사에 감사합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 명 :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겸손히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 교 헌 금 오혜리 윤정환

생 일 헌 금 나영임 정옥자

특 별 헌 금 (김광선 김영중) 강단현화 (신충우 김영미) 박선 (조규성 정미애)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창립기념주일 : 오늘은 교회창립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일헌금은 창립기념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로목 사님과 내빈 분들은 대회의실과 회의실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 종탑이전식 및 단체사진촬영 : 오늘 예배 후에 3층 입구와 야외에서 있습니다.
- 창립70주년 기념 굿즈(기념품) 전시 및 판매 : 오늘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 창립70주년 기념주일 부스운영 : 오늘 1층 로비에서 있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0트리, 사진전시, 인생네컷(즉석사진))
- 금주 부임심방 : 최경애
- 유아세례예식 : 5월 10일(주일)에 있으며,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로교우위로회 : 5월 7일(목) 충북 제천에서 있으며,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 5월 예배담당 :

주	주일		수	수요성서
	기도	성경봉독		
3	조영익	이영호	6	최명희
10	집례자	김보라	13	박경아
17	홍영기	집례자	20	이진경
24	강정훈	송대현	27	6지회
31	김기석	이현희		

■ 5월 예배위원 :

성찬준비 박범택 안홍순

1부 안내위원 : 조삼순 헌금위원 : 김진우 성봉구

2부 안내위원 : 류은숙 홍정순

헌금위원 : 윤연중 이예은 김재성 이해민 전동순

■ 모임안내

- 여선교회 월례기도회 : 29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중예 배당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감사 : 도서실 신간도서를 후원해 주신 박희 성도께 감사드립니다.
- 특별봉헌 : 김광선 목사, 김영중 사모께서 故김성렬 목사 기념 기금을 봉헌하셨습니다.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5월 중 행사

- 성찬예식 : 3일(주일)
- 첫단추 기도회 : 3일(주일) 오후 2시
- 가족주일(유아세례예식) : 10일(주일)
- 어린이를 위한 부스 행사 : 10일(주일)
- 목장모임 : 10일(주일), 24일(주일)
- 청년주일(입교예식) : 17일(주일)
- 서대문지방 대운동회 : 25일(월)
- 존 웨슬리 회심기념 연합성회 : 27일(수)19:25, 서대문교회
- 기획위원회 : 31일(주일)

■ 금요성령집회는 근로자의 날 휴일로 쉽니다.

■ 주일아침예배 (5월 3일)

대표기도	조영익 장로
성경봉독	이영호 집사

■ 주방봉사

- 이번 주 : 3초원
- 다음 주 : 4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담임목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련목회자 송호준
- 전도사 박지연
- 교육전도사 서지수

- 소속목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가지회 김정희 김병일
- 반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